



Enterprise Mobility 구현의 핵심, MEAP 동향

김동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스마트폰 단말 환경은 기업의 모바일 서비스 개발 환경을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바일 기업 애플리케이션 플랫폼(Mobile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MEAP)이 주목 받고 있지만 모바일 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MEAP 또한 그 수준이 제각각인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Enterprise Mobility Service(EMS) 구현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MEAP의 개념을 소개하고, MEAP 관련 시장 동향과 시장 플레이어들이 제안하고 있는 솔루션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MEAP의 관련 이슈 사항과 향후 전망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목 차

- I. 서론
- II. EMS와 MEAP의 이해
- III. MEAP 동향
- IV. 결론

I. 서론

최근 IT 분야의 화두 중 하나는 단연 ‘모빌리티(mobility)’이다. 이동성, 기동성 등의 뜻을 가진 모빌리티는 기업 구성원의 정보 획득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에게 이동의 자유로움과 함께 사고의 한계를 허물어뜨릴 기회까지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기업의 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모바일 오피스 도입 열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반적인 IT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모빌리티 관련 예산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1]. 여기에 국가 차원에서도 스마트워크/워킹(Smart Work/Working)이 강조되면서 CIO들의 검토 대상 중에서 높은 우선 순위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기업의 모바일 오피스 도입 양상은 아이폰의 등

* 펜타시스템테크놀로지㈜ 고등기술연구소 소장

장과 더불어 촉발된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윈도모바일 기반의 옴니아와 자체 OS를 사용하는 블랙베리 정도였던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중심으로 바뀌었다. 즉, 모바일 오피스의 핵심인 스마트폰 환경이 180도 변화한 것이다. 개인용 전화로도 이용되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최신 유행을 쫓는 직원 개개인의 선호도도 기업 모바일 오피스 정책에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적용 업무 영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확인이나 결제 정도만 처리하면 모바일 오피스가 완성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이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 영업지원, 물류관리 등 현업 부서별로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으며, 경영진 역시 사내 업무에만 한정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대외 비즈니스로도 확대 적용하여 기업 실적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을 주문하기 시작했다[11].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스마트폰 단말 환경은 기업의 모바일 서비스 개발 환경을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바일 기업 애플리케이션 플랫폼(Mobile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MEAP)이 주목 받고 있지만 모바일 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MEAP 또한 그 수준이 제각각인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Enterprise Mobility Service(EMS) 구현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MEAP의 개념을 소개하고, MEAP 관련 시장 동향과 시장 플레이어들이 제안하고 있는 솔루션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MEAP의 관련 이슈 사항과 향후 전망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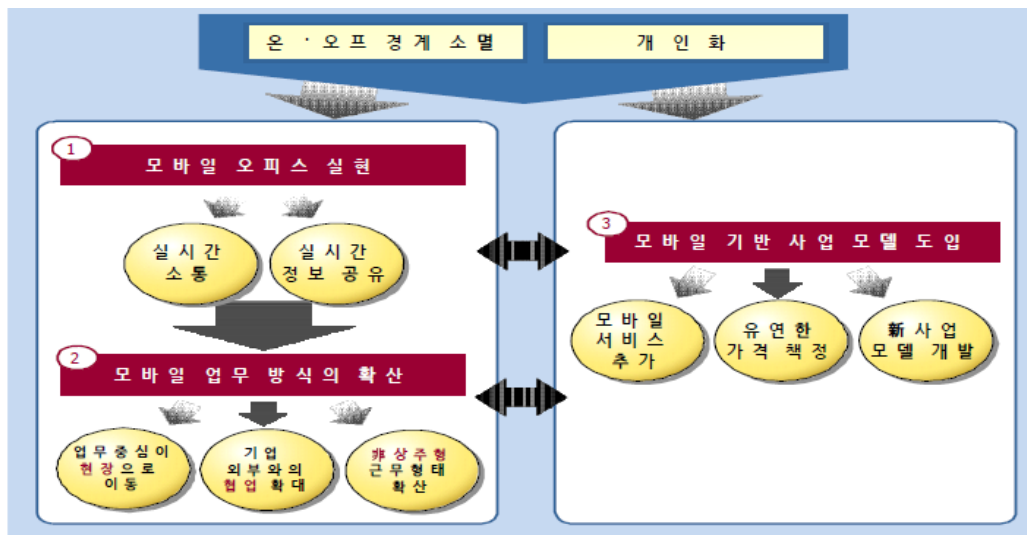
11. EMS 와 MEAP 의 이해

1. 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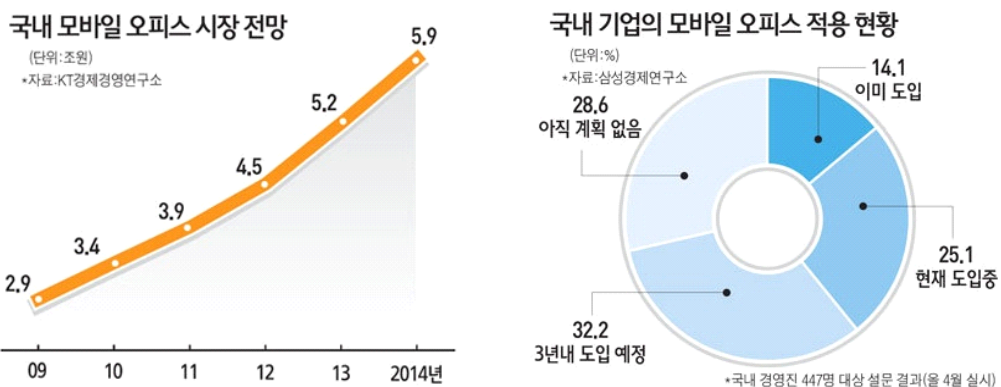
삼성경제연구소는 “모바일 빅뱅과 기업경영의 미래”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모바일 인프라, 기기, 서비스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모바일 빅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에는 기업경영 측면에 있어 3 가지 큰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고하였다[2]. 첫째, 모바일 오피스 실현을 통해 직원 간 실시간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어 업무 지연이 감소하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한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부에서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즉석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모바일 업무방식의 확산이다. 우선 업무의 중심이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모바일을 통한 기업 외부와의 협업도 확대되어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전체 공급망의 효율화, 외부 전문가와의

지식공유 활성화 등 기업 외부역량의 활용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물리적 사무실의 중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비상주형 근무형태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셋째, 모바일 기반 사업모델의 도입이 가속화된다. 단순히 기존 상품에 모바일 서비스를 추가하는 모델뿐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 모니터링한 고객의 행동패턴을 고려한 유연한 가격책정 모델, 모바일과 이종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사업 모델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것이다(그림 1) 참조.

위 변화들 중 모바일 오피스 실현과 업무 방식의 확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기업들이 이미 도입 및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야가 EMS 다. 2010 년 4 월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 경영진 447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바일 오피스를 이미 도입하였다는 응답은 14.1%, 현재



(그림 1) 모바일 시대 기업경영의 3대 변화[2]



(그림 2) 국내 모바일 오피스 시장 및 적용 현황

도입 중이라는 응답은 25.1%로 급증하였다(그림 2) 참조). 즉 전체 응답자의 80%가 ‘3년 내에 업무환경이 모바일 중심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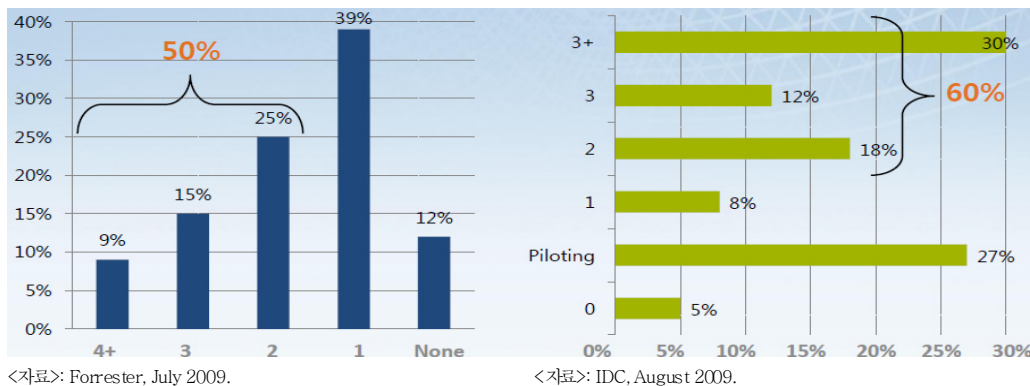
이처럼 이슈가 되고 있는 EMS는 아직까지는 각 EMS 제공자별로 개념과 범위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런 상황이지만 정리하면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데이터, 프로세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 인프라, 서비스를 총칭하는 기업업무 환경”을 의미하며, 동일한 개념으로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 워크, Flexible Work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2. MEAP

스마트폰의 활성화 이전의 모바일 오피스 시장은 산업용 PDA로만 국한된 단순한 환경이었는데, 다양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유지보수 및 통합 측면에서 기업들은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그림 3) 참조).

이러한 모바일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모바일 오피스 도입 목표가 재활용성, 투자 효율성 방향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스마트폰 OS, HW 및 통신사 환경에 대한 코드 재활용성 제공, 플랫폼 공유 통한 서비스 제공 인프라, 미들웨어에 대한 중복 투자 방지, 다양한 단말기에 대한 모바일 화면 개발 지원, 테스트와 연동을 위한 지원 등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그림 3) 참조).

MEAP란 용어 자체는 기존 스마트폰별 앱 개발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는 모바일 오피스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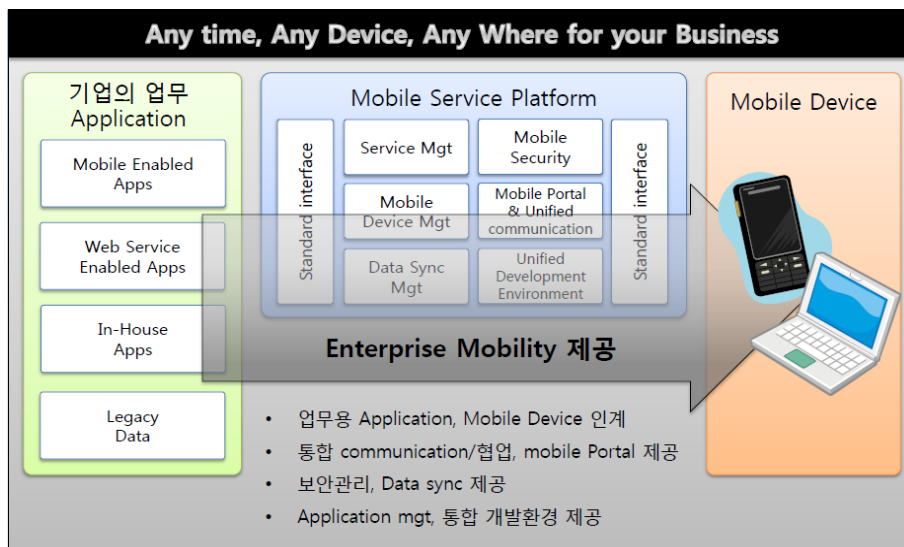
(그림 3) Mobile 업무환경 다변화

현 방식 중 하나로 가트너가 소개하였으며,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MS 구성을 아키텍처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MEAP, 스마트 디바이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중에 언제 어디서나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 요소가 바로 MEAP 이다(그림 4) 참조). 특히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구현과 관련하여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재사용을 지원하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특성에 맞는 화면을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등의 One Source Multi Platform(OSMP)의 지원이 MEAP의 핵심 개념 또는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Cross-Platform 모바일 앱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불리기도 하고, 모바일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능(디바이스 관리, 보안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Mobile Service Platform 이라고도 불려진다.

MEAP가 갖추어야 할 필요 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현재 시장에 출시된 MEAP 솔루션들을 분석해 보면 이 조건들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One Source Multi-use”, “Write Once Use Everywhere”, 또는 “Any Device Any Platform” 같은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MEAP은 스마트폰 플랫폼의 종류, 모바일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리치 클라이언트 등의 다양한 클라이언트 형태를 지원하고, 사용자 경험에 바탕을 둔 UI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기존 산업용 PDA 환경의 동시 지원도 가능해야 한다.



(그림 4) MEAP 개념도[19]

- 통합개발환경(Integrated Develop Environment: IDE)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구성, 코딩, 테스트, 디버깅 같은 작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바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충분한 추상화 계층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단말환경에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수의 제품들이 메타언어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 관리기능 및 보안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단말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제어기능을 제공하고, 단말분실 또는 해킹 등의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안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 백엔드 통합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비즈니스 로직과의 연동, SNS 와의 연동 등과 같이 모바일 환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 백엔드 서비스의 복잡도가 높아지는 문제점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 플랫폼 확장성 및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확대 시에 대응 가능하여야 하며, 비즈니스 로직 등의 코드 변경없이 다양한 환경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I. MEAP 동향

1. MEAP 관련 시장 동향

세계 EMS 시장 규모는 오는 2013년까지 76 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IT 서비스 시장 규모가 600 조 원 가량인 것과 비교해 보면 10% 정도가 모바일 부문에 투자되는 것으로서 실로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다[3].

KRG 에서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와 관련하여 에듀테인먼트와 기업용 특화 시장을 주목해야 하며 2011년 10대 기술 이슈 중 하나로 스마트 오피스와 모바일 보안을 꼽았다[10].

또 다른 조사 기관인 한국 IDC 는 2011년 국내 IT 시장을 전망하면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수요 확대를 점치는 한편,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계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환경의 진화가 원격근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어 기업들의 모빌리티 관련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개인용 디바이스의 기업용 네트워크 접속 증가와 함께 관리 부문의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MEAP 솔루션 시장과 관련해서 가트너는 2011년 초 전세계 시장 규모는 10억 달러를 형성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95% 정도의 기업이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MEAP 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6].

2. MEAP 솔루션 동향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려면 플랫폼들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한다. 네이티브 앱(Native App.)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모바일 앱 방식으로 각 단말 플랫폼에서 개발하려면, 플랫폼별 특성뿐만 아니라 <표 1>과 같이 개발 언어 및 개발 툴 환경에서부터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모바일 플랫폼 별 개발 환경([8], [12], [14], [17] 참고 재구성)

플랫폼	Apple iOS	Google Android	MS Windows Phone 7	RIM Blackberry(BB)	HP(Palm) WebOS	삼성 Bada
개발 언어	Objective-C, C, C++	Java(C, C++ 제한적 지원)	C#	Java	Java Script	C++
개발 툴	Xcode	Android SDK & NDK	Visual Studio, Windows Phone Dev Tools	BB Java Eclipse Plug-In	WebOS SDK	Bada SDK

모바일 앱 방식은 단말(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말 특성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성능이나 보안도 뛰어나지만 GPS 나 음성인식 등 스마트기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단말에 저장할 수 있다. 특히나 국내 모바일 오피스 구현 작업 시에 개발이 훨씬 편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되지 않은 인터페이스로 활용도를 떨어지는 모바일 웹 방식보다는 모바일 앱 방식을 기업들은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말 플랫폼별로 개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다. 즉 아이폰은 오브젝티브 C,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자바 등 각 단말 플랫폼의 개발 언어로 개발해야 한다. 이것이 모바일 오피스를 구현하려는 기업이 표준 단말을 하나 혹은 많아도 2 개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며, 단말기의 제한적 선택은 기업의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특정 단말에 종속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어 한번 개발된 모바일 환경이 쉽게 퇴물화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투자회수를 담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해결책을 멀티 디바이스 관점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MEAP 가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기업 모빌리티 시장에서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MEAP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솔루션 벤더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가트너에서는 이들을 다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 모바일 OS 에 중점을 둔 벤더들로 Microsoft, Apple, RIM 과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다양한 모바일 OS 의 지원보다는 단일 OS 환경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주력

하고 있다. 가트너는 현재 시장의 40~60%를 차지하는 이들의 점유율이 향후 다양한 디바이스와 OS 에서의 기업환경의 중요성에 직면하게 되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Sybase, IBM, Pyxis Mobile, Spring Wireless 와 Syclo 와 같이 다양한 채널(디바이스 및 서비스)에서 모바일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벤더들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두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 SAP, Oracle 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에 기반을 둔 벤더들로 기존 자신들의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의 MEAP 시장 적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이러한 기존 벤더 시장에 salesforce.com 과 구글과 같은 경쟁사들이 새로이 참여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사들의 시장참여는 웹기반 애플리케이션 시장과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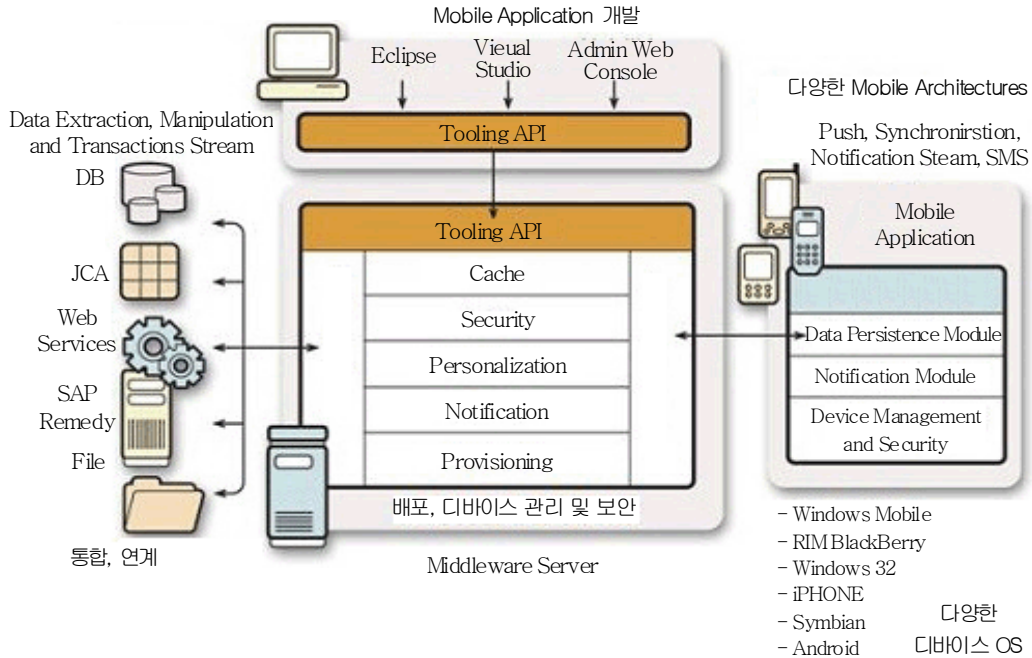
현재 국내 MEAP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 글로벌 SW 벤더, IT 서비스 사업자, 통신 사업자, 국내 SW 벤더 등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활발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뱅킹, 테블릿 뱅킹 등 급변하는 금융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 시장 상황에서 소개되고 있는 MEAP 솔루션을 사업자 유형별로 묶어서 정리하였다.

가. 글로벌 SW 벤더

주로 글로벌 SW 벤더들의 솔루션들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용 SW 벤더인 SAP(Sybase), IBM, Oracle 등의 거대 기업과 Antenna Software, WorkLight 등과 같은

<표 2> SW 벤더 MEAP 솔루션([4], [5], [13] 참고 재구성)

기업명	MEAP 솔루션	특징	적용 사례
Antenna Software	AMP(Antenna Mobile Platform)	- iOS,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윈도 모바일, 심비안 등 지원 - 시장, 기술 선도 기업으로 평가(Gartner)	KT 모바일 오피스
SAP(Sybase)	SUP(Sybase Unwired Platform)	- iOS, 윈도 모바일, 블랙베리 지원 - Visual Studio, Eclipse 등 보편적 IDE 를 통합	삼성 SDS 미국법인
한국 IBM	SPoSA (Smartphone oriented Service Architecture)	- iOS, 안드로이드, 윈도 모바일 지원 - 셀라돈(Celadon, 위치 인식 기반 플랫폼)에 기반(IBM, 정통부 공동 투자) - 와이파이 LBS, 디바이스 콜레보레이션 등 다양한 추가 기능 제공	아모레퍼시픽 모바일 그룹웨어, SKT 파일럿 프로젝트 등
Oracle	ADF(Application Development Framework) Mobile	- Web, 네이티브 앱(제한적) 지원 - MVC 아키텍처 - Ajax 기반 클라이언트 UI 컴포넌트	메리츠 금융정보 서비스와 전략적 제휴
WorkLight	WorkLight Platform	- iOS,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지원 - Hybrid Coding IDE	롯데카드 '스마트 롯데(고객용 모바일 서비스)'



(그림 5) SUP 아키텍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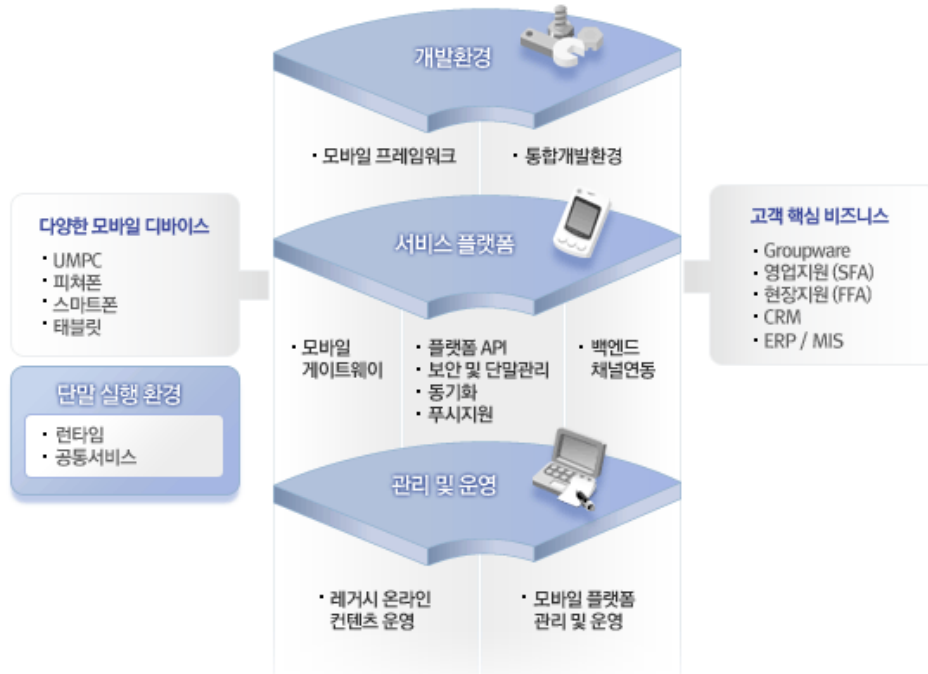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문 벤더들로 구분되며 <표 2>는 이들 벤더의 솔루션, 특징 및 국내 적용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나. IT 서비스 및 통신 사업자

KT와 SK 텔레콤, LG 유플러스와 같은 통신사들은 B2B 수익 강화 차원에서 기업 모빌리티 전담팀을 꾸려 움직이고 있고, 특히 KT의 경우는 MEAP 솔루션 시장에도 직접 진출하였다. 삼성 SDS, LG CNS, SK C&C 등 국내 주요 IT 서비스 기업들은 올해의 성장동력과 핵심 사업으로

<표 3> IT 서비스 및 통신 사업자 MEAP 솔루션([5], [13], [16] 참고 재구성)

기업명	MEAP 솔루션	특징	적용 사례
삼성 SDS	시큐어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플랫폼(SEMP)	- 2011년 5월 제품 출시 예정	기업은행 신영업지원시스템 (예정)
KT	KT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플랫폼(KEMP)	- Antenna Software의 AMP 기반 - 대기업용, 중소기업용, 의료, 보험, 교육, 증권 등 10개 산업별 특화	‘올레 비즈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 ‘스마트앱’ 사업
SK C&C	NEXCORE Mobile Platform	- 2011년 상반기 제품 출시 예정 - iOS,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지원 - 모바일 앱 라이프사이클 지원	없음



(그림 6) NEXCORE Mobile Platform 아키텍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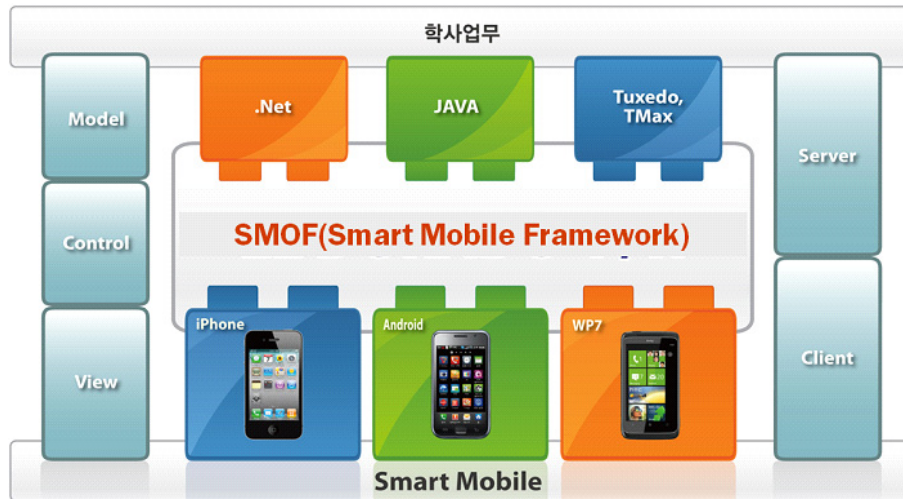
모바일 부문으로 선정하고 국내외 시장 공략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3>과 같이 MEAP 솔루션을 출시하였으며, 아직 출시하지 않은 LG CNS도 오는 5월 말에는 제품을 출시, 시장 공략을 서두를 예정이라고 한다.

다. 국내 SW 벤더

글로벌 SW 벤더, IT 서비스 업체와는 달리 국내 SW 기업들은 틈새 시장을 목표로 독자적인 MEAP 솔루션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4> 국내 SW 벤더 MEAP 솔루션([13] 참고 재구성)

기업명	MEAP 솔루션	특징	적용 사례
펜타시스템 테크놀로지	SMoF (Smart Mobile Frame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S, 안드로이드, 윈도 모바일(예정) 지원 - 하이브리드 앱 방식(MVC 아키텍처, 기존 비즈니스 로직 재사용 극대화) - 대학교 학사 행정 특화 프레임워크 	한국외국어대 모바일 수강 신청 시스템(HUFS)
웹캐시	Smartwork S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S, 안드로이드 지원 - 금융권 특화 프레임워크 	태블릿 기반 스마트 बैं킹 서비스(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이용)



(그림 7) SMoF 아키텍처

라. 오픈 소스

이외에도 2010년 6월 ETRI에서 개발한 HyWAI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핵심 API들을 구현하였고, iPhone 플랫폼에서 일부 API들을 구현하였으며 향후에 RFID, 블루투스, XMPP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계속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9].

<표 5> 오픈소스 MEAP 솔루션([14] 참고 재구성)

기업명	MEAP 솔루션	특징	적용 사례
Rhobile	Rhodes	- Web 기반 프레임워크 - Ruby on Rails(RoR)의 MVC 개발 패턴 차용 - IDE 제공하지 않음	오픈소스 커뮤니티 연구용으로 사용
PhoneGap 프로젝트	PhoneGap	- Web 기반 프레임워크 - JavaScript API만으로 네이티브 앱 수준의 기능 제공 (bottom-up 접근) - IDE 제공하지 않음	하이브리드 앱(스케치용 앱 '하모니어스', 식사량 조절용 앱 '칼로리 칼콜레이터' 등)

IV. 결론

앞에서 현재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MEAP 개념, 솔루션들을 살펴보았으며, 기업 모빌리티 환경의 디바이스 OS 다변화로 발생한 문제를 MEAP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소위 모바일 웹 방식이라고 불리는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웹 브라우저만 있다면 웹 애플리케이션은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디바이스와 OS

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개발에 대한 비용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MEAP의 대안으로서 부족하다.

- 페이지 로딩 방식에 따른 느린 속도
- 디바이스의 한계에 따른 처리 속도의 한계점
- 다양한 디바이스를 직접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웹 브라우저의 제약점

기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모바일 데스크탑 가상화(VDI)이다. 그러나 모바일 데스크탑 가상화도 PC(데스크탑) 업무 환경을 별도의 개발 작업이나 비용 없이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지만 카메라, GPS 등 스마트기기만의 기능을 업무 애플리케이션에 접목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렇듯 모바일 데스크탑 가상화도 웹 애플리케이션과 비슷한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MEAP의 대안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이와 같이 현재로써는 모바일 오피스 구축에 있어 MEAP은 가장 매력적인 대안임을 알 수 있다. MEAP을 통해서 비용절감, 개발비용 단축, 다양한 단말 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MEAP도 해결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MEAP은 현재의 모바일 환경을 100%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모바일을 대표하는 OS 환경의 변화 속도가 MEAP가 지원할 만큼 느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호환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문제이다. 또한 “완전한 원소스 멀티유스는 힘들다”는 것이다. 다양한 단말의 UI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UI 결과물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UI 자체 개발을 포함하여 스마트 기기의 특화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네이티브 앱 방식과 모바일 웹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개발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현재 여러 가지 제약점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웹은 서비스 플랫폼으로써 표준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한 HTML5이 2014년에 공식 발표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됨은 물론 MEAP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HTML5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MEAP과 포지셔닝 충돌에 따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MEAP가 HTML5를 포함시킬 것인지, MEAP가 HTML5로 결과물을 표시하거나 HTML5를 좀 더 쉽게 생성하여 내거나 그 결과물을 더 멋있게 표시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공존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MEAP가 웹 브라우저만큼 그것들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표시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기업들은 두 기술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지켜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100% OSMP 의 사상을 충족시키는 MEAP 솔루션은 존재할 수 없으며 기업 환경에 최대한 부합하는 MEAP 솔루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은 심도 있는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기업 모바일 오피스 구축에 있어 최선의 대안은 MEAP 라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참 고 문 헌>

- [1] Johna Till Johnson, “모빌리티 업무 환경의 정의”, IDG Tech Focus Mobility Strategy, 2011. 3, pp. 2-3
- [2] 강민형, 김진성, 이준환, 정태수, 이준기, “모바일 빅뱅과 기업경영의 미래”, SERI CEO Information 제 760 호, 2010. 6.
- [3] 김원중, “모바일 전략의 중요성”, 전자신문, 2011. 1. 24.
- [4] 박현선, “롯데카드 모바일서비스 ‘스마트롯데’가 특별한 이유”, CIOBiz, 2011. 4. 6.
- [5] 박현선, “기업 모바일 오피스, ‘MEAP’를 주목하라”, CIOBiz, 2011. 1. 27.
- [6] 박현선, “2011 기업 모바일 오피스, 새 전략 필요하다”, 전자신문, 2011. 3. 6.
- [7] William Clark, Michael J. King, Magic Quadrant for Mobile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s, Gartner, 2009. 12. 16.
- [8] 정영준, 임채덕, “스마트 디바이스 SW 플랫폼 기술 동향”, 주간기술동향, 1485 호, 2011. 3. 4, pp.14-29.
- [9] 이승윤, 전종홍, 이원석, “하이브리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HyWAP”, 정보과학회지, 2010. 6, pp.18-24.
- [10] 강동식, “모바일 오피스로 업무환경 대혁신”, 디지털타임스, 2011. 1. 3.
- [11] 이호준, “[모바일 오피스 1 기 기업의 고민①] 시행착오 닫고 혁신 착수”, CIOBiz, 2010. 10. 10.
- [12] 한국IDC,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올해 50% 성장”, IDC Newsletters, 2011. 4. 12.
- [13] 박세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술 개발 동향”, NIPA, 주간기술동향, 1491 호, 2011. 4. 15, pp.18-28.
- [14] 최지훈, “Cross-Platform 모바일 앱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찰”, KT 경제경영연구소, 2011. 3.
- [15] 정진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MS TechNet 기술 세미나 발표자료, 2010. 9. 29.
- [16] 어판 칸, “기업 내 모빌리티 구축, MEAP 로 위험부담 낮추기”, IDG, 2011. 2. 7.
- [17] 윤상호, “KT, ‘기업 모바일 혁신, 멀티 디바이스·멀티 OS 기반 중요’”, 디지털데일리, 2011. 3. 3.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NIPA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